

발행인 박재홍
편집인 윤지나, 류다연

주소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방송국 7층 노동조합
TEL 02-2650-7390~2 FAX 02-2650-7393
www.cbsunion.or.kr

선관위특보

4/30(금) 오전 9시 - 오후 6시 찬반투표(전자) 실시

제22대 노조위원장 선거 선교TV본부 TV제작국 반태경 조합원 단독 입후보

전국언론노동조합 CBS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22일(목)까지 제22대 노조위원장 후보등록을 받은 결과, 서울 선교TV본부 TV제작국 반태경 조합원이 단독으로 입후보하였습니다. 이에 2021년 4월 30일(금) 투표를 실시합니다. 투표는 개인에게 문자로 발송되는 링크를 통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자투표로 실시합니다. 조합규약에 따라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투표하여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로서 당선이 확정되며 투표가 끝난 후 당선자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22대 노조의 임기는 2021년 6월 1일부터 2년간입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한표한표가 CBS 미래를 만드는 강한 노조 건설의 주춧돌임을 기억하시고 투표에 반드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반태경
1977. 07. 11

✓ 업무경력

- 2005. 공채 26기 프로듀서 입사
- 2009. 10년 신규미디어사업추진본부(보도채널 준비TF) 파견
- 2017. <다시 쓰는 루터 로드> 공동 연출
- 2018~2019 <북간도의 십자가(영화)> 연출, 감독
- 한국기독교언론대상 3회, 케이블방송대상 2회 등 수상
- 현재 TV제작국 프로듀서(차장)

✓ 노조활동

- 2011~2014 17-18대 노조 공정방송위원
- 2017~2018 20대 노조 공정방송위원회 간사
- 2019~현재 21대 노조 수석부위원장

위원장 후보 정견문

우리에게 CBS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노동조합은 어떤 존재입니까?



2007 임단협

계속되는 코로나 19 위기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사장과 재단 이사장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난 70년 가까운 세월 동안 CBS를 지탱해왔던 원동력은 사장/이사장 등 경영진이 아닌 우리 구성원들이었고 노동조합이었습니다. CBS의 '그랜드 크로스' 속에서 CBS의 가치를 지키며 CBS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건 오직 노동조합뿐입니다.

지난 2005년 입사 이후 공정방송위원회 간사, 노조 수석 부위원장 등을 맡으며 노동조합과 함께 해 왔고, CBS 공동체를 위해 고민과 헌신을 계속해 왔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이런 경험을 살려 "생동(生動)하는 노동조합"을 세우기 위해 언론노조 CBS 지부장, 제22대 CBS 노동조합 위원장 후보로 나섰습니다. 아래와 같은 '기본'을 지키며 언제나 선후배 조합원 동지들 곁에 있겠습니다.

Action Plan #1 CBS의 '정체성'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행동"하는 노동조합

코로나 19로 인한 경영 위기 가운데 첫 4년 단임제 사장의 임기가 시작됩니다. 어느 인사가 사장이 되든 2021년 하반기부터 상당한 조직 개편과 개혁(?) 드라이브가 있으리라는 전망이 팽배합니다. 노조는 사측의 행보를 예의주시하며, 언론기관이자 선교기관인 CBS의 정체성을 기준으로 묻고 판단하고 행동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획을 22대 노조 집행부 임기 내내 진행하겠습니다.

- ▶ "새 사장에게 바란다" 22대 노조 임기 시작 직후(6월 초) 직능단체장 긴급 간담회 개최
- ▶ "CBS 안녕들 하십니까?" 새 사장에게 바라는 직원들의 목소리 청취, 노보 특보 발행
- ▶ 주요 현안에 대한 비대면 간담회/토론회 수시 개최, 노조 주최 비대면 신앙 사경회 기획 등



2009 미디어법 투쟁



2008 노조 창립 20주년 기념식

Action Plan #2 CBS의 '공동체성'을 다시 세우는 노동조합

조합원 340여명, 전 직원 5~600명의 크지 않은 규모임에도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부서/직능 밖 선후배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파편화된 조직이 되었습니다. 세대/직종/지역을 잇는 유일한 가교는 바로 노동조합입니다. 그리고 생동하는 노동조합의 힘은 조합원의 교류와 연대에서 나오는 '공동체성'에서 시작됩니다. 무너진 공동체를 노조가 다시 세우겠습니다.

- ▶ 세대/직종/지역을 넘나드는 조합원 교류의 공간 창출
- '공감의 식탁', '베이킹파우더' 등 전임 집행부 진행 프로젝트 창조적 계승 (비대면 교류)
- ▶ 코로나 19 극복 이후 조합원 단합대회, 가족동반 야유회 등 추진

Action Plan #3 존재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될 노조 : 소통 및 직접 민주주의의 확대
회사의 현안에 대해 가감없이 소통하고 토론하겠습니다. 조합원 모두가 서로의 시시콜콜한 일상까지 나눌 수 있는 식구(食口)가 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이 계신 현장으로 수시로 '하방(下放)'하겠습니다. 노동조합의 존재 이유를 따로 묻지 않아도 될 정도로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는 노조를 만들겠습니다.

- ▶ 중앙집행위 정례화 및 회의 내용 및 집행부 활동 정기 보고
- ▶ 노동 환경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조합원 대토론회, 총투표 시행
- ▶ 조합원의 목소리를 담은 온-오프라인 노보 격월 정기 발행 및 SNS 등을 통한 소통 강화
- ▶ 공정방송 백서 발간 추진 등



2017 공방위 간사 (국장 추천선거 개표)



2017 노사협의회

Action Plan #4 사회적 약자, 회사 내 상대적 약자들과 연대하며 상생하는 노동조합

'CBS 노동조합' 깃발 아래 정의와 공의를 위해 거리에서 외쳤던 구호들을 기억합니다. 노동조합의 외침이 사내에만 머무르지 않도록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그 정의와 공의의 정신을 회사 내 상대적 약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며, 함께 살아가는 CBS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 ▶ 언론노조 및 민주노총 주관 집회 결함 활성화 (사전 교육 진행)
- ▶ 지역국, 연봉직(비정규직) 조합원 노동 환경 개선 노력
- ▶ CBSi, 파견직, 프리랜서(작가, AD) 등과 소통하며 상생 방안 마련 등

5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340여 조합원 모두를 만나고 싶습니다만 사장 선거 공청회까지 겹쳐서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직접 인사를 못 드리는 지 역도 더러 있어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6월 임기 시작 전에는 선거 운동 기간 못 찾아본 모든 지역을 찾아가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그렇게 확인된 '집단 지성'을 바탕으로 CBS의 위기를 돌파하고 새로운 미래를 그려내는 생동하는 노동조합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일터 위에는 거대한 체념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희망의 조건은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노동조합 깃발 아래 토론하고 단결하고 연대하며 새롭게 그 조건들을 찾는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지난 70여 년간 우리를 이끈 그분과 함께...!

We make our own plans, but the LORD decides where we will go
(Proverbs 16:9)